

성경과 역사 속에서의 교회(The Church in the Bible and in History)

강연: 하비 C. 브림 2세(Harvey C. Bream, Jr.)

번역: 조동호

제5부 환원운동(1900-1969) (배도)[PART V THE RESTORATION MOVEMENT (1900-1969) (Apostasy)]

소개[INTRODUCTION]

I. 정의 - 이탈, 원칙들이나 믿음의 포기[I. Definition - the falling away, the abandonment of principle or faith.]

강의 시리즈의 제목은 ‘성경과 역사 속에서의 교회’입니다. 우리의 첫 번째 강의에서 우리는 그것이 전부 어떻게 시작되었고, 어떻게 교회가 설립되었으며, 어디에서 설립되었는지에 대해 공부하였습니다. AD 30년 예루살렘에서였습니다. 우리는 또한 그 강의에서 우리가 오늘날 회복하려고 힘쓴 신약성경에서의 교회의 여섯 가지 주요 특성을 고려하였습니다. 두 번째 강의에서 우리는 교회에 무엇이 잘못되었는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우리는 신약성경의 규범이나 기준의 배도 즉 포기를 살펴보았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역사가가 세계사의 암흑기 또는 중세시대라고 부는 것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런 다음 세 번째 강의에서 우리는 돌아오는 길, 그리스도교(개신교) 개혁, 교회의 남용을 개혁하기 위해 노력했으며 이러한 운동이 많이 발생하게 된 방법과 이유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런 다음 네 번째 강의는 새로운 시작인 환원운동에 대해서 다뤘고, 부분적으로 여러 인물들과 여러 교단들에 관해서 신약성경의 이상과 그 교리들, 의식들(침례와 주의 만찬), 삶 그리고 후속적으로 이 운동의 역사를 채움에 따라 교회를 회복하려고 힘썼습니다. 이제 우리는 다섯 번째 강의, 잘못된 방향전환, 또 다른 하나의 잘못된 방향전환에 도달합니다. 그것은 20세기의 배교이며, 모든 교회 역사에서 가장 암울한 장(章)들 중 하나입니다. 배도라는 그 말의 정의는 다시 단순히 원칙들이나 믿음에서 이탈하거나 포기하는 것입니다.

II. 성경적 경고 - 사도행전 20:28-31; 로마서 16:17, 18[II. scriptural warning - Acts 20:28-31; Romans 16:17, 18.]

이제 그러한 배도는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20장에서 사도 바울이 위대한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강론할 때 28절부터 시작하여 이렇게 말해야 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 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 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삼 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여기 로마 그리스도인들에게 쓴 편지에서 사도 바울은 16장 17-18절에서 이렇게 말해야 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good) 말과 아첨(fair)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III. 배경[III. Backgrounds:]

A. 선교회들의 결성[A. Formation of missionary societies.]

이 신약성경의 호소를 국내외에 전파하기 위해서 시행하기 위해서 그것을 상기하십시오. 그것들은 선교회들의 결성이었습니다.

1. 미국그리스도인선교회(American Christian Missionary Society) - 1849.

첫 번째는 1849년 오하이오 주 신시내티 대회에서 출범된 미국그리스도인선교회였습니다.

2. 그리스도인여성선교국(Christian Women's Board of Missions) - 1874.

1874년에 그리스도인여성선교국이 설립되었습니다.

3. 해외그리스도인선교회(Foreign Christian Missionary Society) - 1875.

바로 이듬해인 1875년에 해외그리스도인선교회가 설립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다음 곧이어 교회확장위원회(the Board of Church Extension), 전국자선협회(National Benevolent Association), 목회자구호위원회(the Board of Ministerial Relief)와 같은 다른 선교 기관들과 단체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다양한 기관들이나 기구들에 대한 불만이 커지는 것이 분명해지기 시작하였습니다.

B. 악기사용 문제 - 1850[B. Instrumental question - 1850.]

이러한 혼란의 복합 속에서 악기사용 문제가 1850년에 발생했습니다. 그 문제는 예배드릴 때 악기를 사용하느냐 마느냐에 관한 것입니다.

C. 캠벨학회(Campbell Institute)의 결성 - 1896. "신(新)학습 또는 지식" - 합리주의(모더니즘)[C. Formation of Campbell Institute - 1896. The "new learning or knowledge" - Rationalism (Modernism).]

그러나 이제 우리는 극적인 전환기에 다닙니다. 그것은 1896년에 결성된 캠프벨 학회(Campbell Institute)라고 불린 것의 결성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에드워드 스크리브너 애임즈(Edward Scribner Ames)는 1917년 이 캠프벨학회의 <발전사: (20년사의 성취에 관한 캠프벨학회의) 기념서>(Progress: Anniversary Volume of the Campbell Institute on the Completion of Twenty Years of History)를 쓰면서 35-43페이지에서 이 흥미롭고 중요한 배경을 설명합니다. 인용합니다.

“1892년 가을, 예일대학교에서 공부하고 있던 다섯 명의 제자들(Disciples)¹⁾이 그리스도의제자들(Disciples of Christ)의 대학들에서와 대학교에서 교육을 받은 목회자들의 조직결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하였다.... 그 후 3년 동안 이 학생들 대부분은 같은 생각을 가진 다른 제자들과 연합하여 시카고대학교에서 그들의 학업을 계속하였다.²⁾ 제자들신학원(Disciples' Divinity House)³⁾이 1894년에 그곳에 설립되었다. 제자들의 역사(History of the Disciples)와 제자들의 교리사(History of Doctrine)에 있는 그것의 과정은 제자들에게 현대 학문에 비취서 이 역사를 조사할 기회를 제공하였다.... 캠프벨학회는 1896년 10월 19일 일리노이 주 스프링필드에서 그리스도의 제자들의 전국 대회 회기들 중에 조직되었고 창립멤버는 14명이었다.... 이 사람들은 더 넓은 문화세계가 그들의 신앙(종교적) 유산에 미치는 영향을 느꼈던 공통 경험에 의해 뭉쳤다.... 그들은 신앙(종교) 활동의 재해석과 새로운 방법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하였다....”

이 글을 지속하면서 세 개의 목적들 가운데 세 번째는 학회의 결성과 그 중요성에 대해 설명하였습니다. 들어보십시오. 인용합니다.

“그리스도의제자들의 문헌과 사고(사상)에 항구적인 가치를 기여할 목적으로 긍정적이고 생산적인 일(저술)을 장려하려는 것이다.”

나중에 우리는 이것이 취한 방향과 형태를 주목할 것입니다. 1906년 <회보>에 실은 짧은 글에서 그 단체는 다음과 같은 말로써 이 개념을 자체적으로 제공하였습니

1) 여기에서 “제자들”이란 그리스도의교회(Disciples of Christ)에 소속된 사람들을 말한다. 분열이 있기 이전에는 소속된 그리스도인들이 주로 “제자들”(알렉산더 캠프벨 쪽에서 선호) 혹은 “그리스도인들”(발톤 스톤 쪽에서 선호)로 불렸고, “Disciples of Christ”는 널리 알려진 교단명칭의 하나였다. 1906년에 예배 때 악기사용을 거부한 미국 남부 그리스도인들이 떨어져나가 “Churches of Christ”(근본주의)가 되었고, 이후 다시 진보성향의 지도부가 장악한 “Disciples of Christ”에서 보수주의 그리스도인들이 탈퇴하기 시작하여 “Christian Churches and Churches of Christ”가 되었다. 그리고 원뿌리였던 “Disciples of Christ”는 1968년에 “Christian Church(Disciples of Christ)”(진보주의)로 교단을 재구성하였다. 영어 명칭에 쓰인 단수와 복수에 유의해야 한다.

2) 예일대학교에서 학위과정을 밟던 제자들이 시카고대학교로 옮겨간 배경에는 예일대학교 구약학 교수였던 윌리엄 레이니 하퍼(William Rainey Harper, 썸족어 권위자, 침례교 목사, 14세에 대학을 졸업한 천재)가 있다. 하퍼는 록펠러(John D. Rockefeller)가 1891년에 세운 시카고대학교 초대총장으로 1893년 35세의 나이에 발탁되어 갔는데, 베다니대학(알렉산더 캠프벨이 세운 제자들 소속)을 나온 후 하퍼 밑에서 학업을 하던 험버트 락우드 윌레트(Herbert Lockwood Willett)가 하퍼를 따라 시카고대학교로 옮겨갔고, 하퍼는 그에게 시카고대학교 영내에 제자들 신학원을 세우도록 권유하였다. 험버트 락우드 윌레트와 에드워드 스크리브너 애임즈는 시카고대학교 교수들이 되었고, 제자들신학원의 원장을 차례로 역임하였다.

3) 제자들신학원은 시카고대학교와 밴더빌트대학교 구내에 설치된 제자들 교육기관으로써 이들 대학교들에서 목회사역을 준비하고 있는 석박사학위 과정의 제자들에게 숙식과 장학금을 지원하고 별도로 교단 정체성 확립에 필요한 교과목들을 이들 대학교들과 연계하여 교육한다.

다. 인용합니다.

“그 학회는 지난 25년간 훌륭한 대학교들을 특징지어온 신지식에 대한 의식의 산물이었다.”

여기에 18세기 기간에 신세계의 해안에 도달한 프로이센 합리주의(Prussian Rationalism)에 대한 환상이 있습니다. 물론 합리주의 공격의 중심점은 미국의 교육기관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의식하시다시피, 미국에 있는 거의 모든 초창기 대학들과 대학교들은 교회들에 의해 설립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은 그리스도교 신앙을 전파하고 수호하기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이들 대학교들과 대학들에서 그것들의 본래의 정관들에 담겼던 그것들 본래의 설립취지(헌장)들은 거의 찾아볼 수 없을 것입니다.

엘스워스 웨리스(Ellsworth Faris)는 1917년 <발전사 기념서>(Progress Volume)에서 캠퐼학회에 관한 질문과 답변 난(欄)을 가졌습니다. 그는 이것을 질문번호 7로 제시하고 답변을 제시하였습니다.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무엇이 그들(즉 캠퐼학회)을 조직하게 만들었습니까?” 대답은 다음과 같습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제자들의 사역과 교육 사업에서 길을 잃고 있거나 길을 잃을 위험에 처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고등 교육이 형제기간에 단절을 의미하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자, 엘스워스 웨리스(Ellsworth Faris)가 말하고 있었던 것은 이것입니다. 예일, 하버드, 시카고대학교와 같은 이들 더 큰 대학원들에서 목회를 위해 공부하고 있었던 또 이 합리주의를 소개받고 있었던 이들 젊은이들의 상당수가 목회를 중도 포기했거나, 또는 그들이 더 이상 환원운동의 원리들을 고수하지 않으면서 환원운동에 남아 위선자가 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으며, 또는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목회사역들을 위해 교파교단들로 옮겨가고 있었고, 그곳에서 그들은 그것이 그들이 새로 발견한 지식과 훨씬 더 일치하는 것을 발견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그들의 캠퐼학회는 이 신지식, 이 신학습, 이 합리주의를 환원운동의 원리들과 합리화시키려고 완전히 눈이 멀어서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들이 얼마나 성공적이었는지를 우리는 향후 문서에서 보게 될 것입니다.

신학계에서 이 신학습 또는 신지식은 무엇보다도 먼저 모더니즘(modernism)으로 불렸고, 그런 다음 나중에는 자유주의 신학(liberal theology)으로 불렸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람들이 이 신지식을 받아들이게 하기 위해 합리화하려는 많은 노력이 있었을 때 그것이 여기서 다시 언급되었음을 발견합니다.

D. 미국종교인구조사국에 별개로 등록 - 1906년[D. Separate U.S. Religious Census listings - 1906.]

그러나 제가 그것에 도달하기 전에, 저는 여기에 일종의 태도 혼란을 야기한 또 다른 것을 추가하고 싶습니다. 1850년에 이 논쟁이 불거진 결과로 야기된 그 뒤에 분열이 뒤따른 것은 그 같은 약기사용 논쟁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러고 나서 이 논쟁은 데이비드 립스콤(David Lipscomb)이란 이름의 저명한 인물인 무악기 설교자에 주로 집중되었습니다. 그는 미국종교인구조사국(the United States Religious Census

Bureau)에 접촉하여 이들 무악기 교회들이 그리스도의교회들(the Churches of Christ)로 별개로 목록에 실리도록 요청하였습니다. 이때가 1906년이었습니다.

같은 해에 그리스도의제자들(Disciples of Christ)의 몇몇 중요한 지도자들이 그때 미국종교인구조사국에 접촉하여 다른 모든 그리스도의교회들(Churches of Christ)과 그리스도인의교회들(Christian Churches)이 그리스도의제자들(Disciples of Christ)이란 이름(caption)으로 목록에 실리도록 요청하였습니다.

E. 100주년 기념대회, 펜실베이니아 주 피츠버그 - 1909년 [E. Centennial Convention, Pittsburgh, Pennsylvania - 1909.]

그런 다음 이 자유주의 신학이 이 환원운동 속으로 침입했다는 첫 번째 징후가 공개적으로 있었던 것은 이때로부터 3년 후인 1909년 펜실베이니아 주 피츠버그에서 열린 100주년 기념대회 때였습니다. 저의 부모님들은 그 특별한 대회에 참석하셨습니다. 저는 저의 유년시절에 저의 어머니께서 이 대회기간에 피츠버그 시내 거리 모퉁이들에서 50명에서 500명에 이르는 군중이 어떻게 그곳에 서서 웅장하고 오래된 시온의 노래들을 불렀는지를 말씀하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녀는 그것이 짜릿한 기분(감동적)이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이 운동은 매우 괴롭힘을 당하였고 크게 비방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여전히 북아메리카 대륙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신앙(종교)운동이었습니다. 그러나 자유주의 신학이 침투한 첫 징후가 있었던 것은 이 대회였습니다. 주요 연사 중 일부는 동정녀 탄생 신화,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 부활에 대한 신화를 언급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커널 새뮤얼 하든 처치(Colonel Samuel Harden Church)라는 이름의 피츠버그 변호사가 행한 한 특정 연설은⁴⁾ 그의 신학이 너무 급진적이어서 전혀 없는 방식으로 그 대회에 참석한 수많은 청중이 야유를 보내기 시작하였습니다. 그것은 너무 급진적이어서 그의 연설문은 인쇄될 그 대회의 다른(후속) 연설문들에 끼지 못하고 출판물에 게재도 되지 않았습니다.

F. 연합그리스도인선교회의 결성 [F. Formation of United Christian Missionary Society - 1919.]

그 직후인 1911년에 당시 해외그리스도인선교회 집행위원회의 통신 또는 기록 서기였던 로버트 엘모어(Robert E. Elmore)가 해외그리스도인선교회로부터 해외에 파송된 선교사들과 서신을 주고받으면서 여기 미국에 있는 교회들에게는 아직 생기도 않았고 알려지지도 않은 소위 개방회원제(open membership)란 것을 선교사들이 실행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자, 개방회원제란 것은 우리가 경건한 미침수자들(pious unimmersed)⁵⁾이라고 일컫는 자들을 교인(membership)으로 받아드리는 관행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교회들에서

4) 커널 새뮤얼 하든 처치(Colonel Samuel Harden Church, 1858-1943)의 강연주제는 '일백년의 진보와 성취들'(Progress and Achievements of a Hundred Years)이었다.

5) '경건한 미침수자들'(pious unimmersed)이란 표현은 1837년에 알렉산더 캠벨이 약식세례를 받은 자들에게 "경건한 미침수 그리스도인"이란 지위를 부여한데서 비롯되었고, 이로 인해서 '루넨버그 서신'(Lunenburg Letter) 논쟁이 있었다.

전도자들과 장로들과 또 다른 지도자로 쓰임받기 위해서 받아드려졌습니다. 엘모어 형제는 이 사실을 형제들에게 알려야한다고 선교회에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거절하였습니다. 그는 도덕적 무결함을 누리기 위해서 마침내 자신의 직(職)에서 사임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이 사실들에 관한 이 모든 주고받은 서신들이 출판되었고, 형제들은 이 상황에 불타올랐습니다.

그런 다음 다시 소위 연합그리스도인선교회(United Christian Missionary Society)라는 하나의 형태(조직)가 된 것은 1919년 오하이오 주 신시내티에서였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앞서 언급했거나 인용한 모든 전술한 여섯 개 기관들의 통합으로 구성되었습니다. 그것들은 모두 이 하나의 기관으로 통합되었습니다. 다시 저는 저의 부모님께서 이 대회에 참석하셨던 것을 기억해냈습니다. 그분들은 (그것이) 극도로 논란의 여지가 있는 문제(이슈)였기 때문에 그들이 투표를 했을 때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분들은 반대(nays)가 우세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장은 찬성(ayes)이 통과됐다고 선언하였습니다. 그 투표를 마쳤을 때 마침내 켄터키 주 조지타운에 있는 역사적인 제일그리스도인의교회(First Christian Church)의 목사인 빨간 머리칼의 설교자가 연설하기 위해서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그는 물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아기를 낳았다면, 우리는 그것을 위해 무엇을 만들 것입니까? 하나의 요람입니까? 또는 하나의 케이지(cage)입니까?” 그 만장일치의 질문은 곧바로 역사적 사실에서 지지를 받아 그들은 빠르게 진행을 시작하였습니다.

IV. 환원운동의 고유(固有)의 원리들[IV. Original principles in the Restoration Movement:]

A. 성경 - 성령의 영감으로 된, 무류(無謬)한 - 하나님의 권위 있는 말씀 - 믿음과 실천의 유일하고도 전적으로 충분한 규범(성경의 백성, 성경책의 백성).[A. The Bible - Holy Spirit inspired, infallible - the authoritative Word of God - the only and all-sufficient rule of faith and practice (a Bible people; a people of the Book).]

이 시점에서 저는 여기서 다시 불쑥 끼어 넣고 싶습니다. “이 시점에서 모든 그리스도인의교회들(Christian Churches)과 그리스도의교회들(Churches of Christ)이 믿어야만 했던 것들이 무엇이었습니까?” 첫째로 그들은 성경이 성령의 영감(靈感)으로 된, 무류(無謬)한, 하나님의 권위 있는 말씀이며, 믿음과 실천 모두에 있어서 유일하고도 전적으로 충분한 규범이란 것을 믿었습니다. 그것이 그들이 성경의 백성 또는 성경책의 백성으로 그들이 언급된 이유입니다.

B. 예수 그리스도 - 메시아와 죄에서 구원자, “살아 계신 하나님의 독생자” - 성령으로 잉태되시고 동정녀에게 태어나심[B. Jesus the Christ - the Messiah and Savior from sin, “the only begotten Son of the living God” - Holy Spirit conceived, virgin born.]

둘째로 모두 다 그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요, 메시아시요, 죄에서 구원자시요, 살

아계신 하나님의 독생자시요, 성령님으로 잉태되셨고, 동정녀에게 나신 하나님의 아들 이신 것과 죽으셨고 장사지낸바 되셨으며, 다시 사셨고, 시작하셨으며, 승천하셨고, 다시 오실 것을 믿었습니다.

C. 교리와 의식들과 삶에서 신약성경의 모범을 따른 교회의 환원[C. The restoration of the church after the New Testament pattern - in doctrine, ordinances, and life.]

셋째로 그들은 모두 교리와 의식들(침례와 주의 만찬)과 삶에서 신약성경의 이상을 따르는 교회의 환원을 주창하였습니다.

D. 신약성경 - 일치의 유일한 실제적인 기준[D. The New Testament - the only practical basis of unity.]

넷째로 그들은 모두 신약성경이 일치의 유일한 실천적 기준이라고 믿었습니다.

E. 인위적인 수단들은 하나님이 제정하신 것들이 아니므로 교제의 시금석들이 되지 못함[E. Human expedients not permitted to become tests of fellowship, as they were not of divine origin.]

다섯째로 그들은 또한 인위적인 수단들은 하나님이 제정하신 것들이 아니므로 결코 교제의 시금석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믿었습니다.

F. 세기의 전환기에 이 기준 위에서 진행 - 오순절 이후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신앙 운동[F. Proceeding on this basis, at the turn of the century - fastest growing religious movement since Pentecost.]

여섯째로 세기의 전환기에 이 기준 위에서 진행되면서 이 운동은 복미 대륙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였습니다. 이제 모든 그리스도의 교회들(Churches of Christ)과 그리스도인의 교회들(Christian Churches)은 금세기가 오기 전까지 이 모든 전술한 것들을 믿었습니다.

I. 합리주의의 침투(불신앙)[I. Infiltration of Rationalism (Infidelity).]

그런 다음 합리주의 또는 불신앙과 불신의 심각한 침투에서 시작되었습니다.

A. R. E. 오스본(R. E. Osborn)에 의해 인정됨 - 국제 대회 - 1958[A. Admitted by R. E. Osborn - International Convention - 1958.]

이것은 1958년 (세인트루이스에서 모임) 그리스도의 제자들 국제대회에서 로널드 E.

오스본(Ronald E. Osborn)에 의해 인정되었습니다. 그의 연설 제목은 “그리스도의 제자들의 미래와 에큐메니칼 항해(航海)”(Future of the Disciples of Christ and Ecumenical Voyage)였습니다. 그 연설에서 그는 캠벨(Campbell), 밀리건(Milligan), 맥가비(McGarvey), 앨런(Allen?) 및 필립스(Phillips)의 교리적 개요를 언급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용합니다.

“오늘날 이들 목소리들은 다른 세계에서 곧 대중정신에 현대과학이 영향을 미치기 전, 성경비평과 양식비평(Form Criticism)이 있기 전, 미개척영역이 지나가기 전, 우리의 비대해진 기관들의 오류가 있기 전, 우리의 전문 목사직이 발전하기 전, 에큐메니칼 펠로우십(ecumenical fellowship)이 출현하기 이전의 세계에서 울려 퍼졌다.”

그런 다음 그는 말할 때 이 탈선을 공개적으로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인용합니다.

“이미 20세기로 접어들면서 우리 입장의 전통적인 공식은 일반적으로 현대사상과 특별히 자유주의 신학의 영향으로 흔들려왔다. 그러나 큰 초교파 대학원들에서 공부한 우리 남성들은”(여기서 그는 예일, 하버드, 시카고대학교와 같은 학교들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자유주의의 관점에서 제자들의 입장을 설득력 있게 재구성하였다. 그리고 금세기 초 수십 년에 걸쳐서 우리는 신흥 에큐메니칼 운동에 신학적으로는 물론 행정적으로도 중요한 리더십을 제공하였다.”

B. 교육자들과 학자들의 견해. 학자들의 패널의 저술들 - <교회 갱신> - 1963년에 출판됨[B. Views of educators and scholars. Published works of Panel of Scholars - The Renewal of Church - 1963.]

1956년에 연합그리스도인선교회(United Christian Missionary Society)와 그리스도 의제자들 고등교육위원회(Board of Higher Education of Disciple of Christ)가 소위 학자들의 패널(Panel of Scholars)이란 것을 선발하였습니다. 이 학자들의 패널은 환원운동의 원리들을 재연구하고 그것들이 수정을 필요로 한 것들을 수정하도록 위임되었습니다. 7년 후인 1963년에 이 학자들의 패널은 <교회갱신>(The Renewal of Church)이라는 세 권으로 엮은 한 질의 책을 출판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세 권으로 엮은 한 질의 책에서 그들은 로널드 오스본(Ronald Osborn)이 여기 그의 연설에서 확인한 모든 것에 대한 확증을 밝혔습니다.

1. 성경의 영감과 무류성에 대한 부인[1. Repudiation of Bible's inspiration and infallibility.]

우선 이들 책들에서, 이들 책들은, 그런데, 주로 이전에 이미 여러 출판물에 실렸던 이들 학자들의 글들로 구성되었습니다. 우선, 시리즈에서 그들은 성경의 영감과 무류성을 부인하였습니다. 그것에 대해 언급된 것을 여기에서 저와 함께 주목해 주십시오. 랄프 G. 윌번(Ralph G. Wilburn)은 당시 켄터키 주 렉싱턴(Lexington Kentucky)에 소재한 칼리지 오브 더 바이블(College of the Bible. Lexington Theological Seminary로 변경됨)의 학생과장(dean)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1959년 1월호 <칼리지 오브 더 바이블 계간지>(the College of the Bible Quarterly)에 실은 ‘그리스도로서 예수의 경

험에 있어서 전통의 역할'(The Role of Tradition in the Experience of Jesus as Christ) 12쪽에서 다음과 같이 썼습니다. 인용합니다.

“성경말씀의 난공불락의 바위는 성경비평학 덕분에 더 이상 난공불락이 아니다.”

같은 글에서 그는 다시 이렇게 말합니다. 인용합니다.

“옛 그리스도교(개신교)의 무류(無謬)한 책은 지성을 위한 비평적 사고(思考)를 위해 영원히 사라졌다.”

그런 다음 그는 또한 이렇게 말합니다. 인용합니다.

“최근의 성경비평에 의해 도달된 결론들에 비추어 볼 때, 신학적 정직(integrity)은 무류(無謬)한 책에 대한 이 잘못된 믿음, 선구자들(fathers)의 관점에서 대단히 모호한 믿음, 신약성경 문서의 틀리지 않을 수 없는 역사적 성격의 포기를 작성하도록 더 많은 힘을 제자들 교단(Discipledom)에게 일으켰다.”

이것은 <인카운터>(Encounter) 1959년 여름호 342쪽에 실린 ‘환원 원리 비평’(A Critique of the Restoration Principle)에서 발견되었습니다.

2. 예수님에 대한 성경의 진술을 거부[2. Repudiation of Bible's representation of Jesus.]

또한 이 시리즈 책에서 이 학자들의 패널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성경의 진술을 거부하였습니다. 켄터키 주 렉싱턴에 소재한 성경대학(College of the Bible)의 신약학 교수인 윌리엄 베어드(William Baird)가 말한 것과 그가 권위로 여겼던 것 그것에 관해서 저와 함께 주목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인용합니다.

“그러나 양식비평의 등장 이후로 예수의 생애에 대해 무엇이 밝혀질 수 있는지에 대한 심각한 질문들이 제기되었다. 복음서들은 역사적 기록들이 아니라 작은 단위들(units 혹은 forms)의 구전을 편집한 것이다. 이들 단위들의 많은 부분이 역사성에서 의심스럽거나 문학적 관련성에서 후대의 편집가가 구성한 것이 확실하다. 역사적 예수에 대한 탐구는 막다른 골목에서 길을 잃은 것 같았다.”⁶⁾

<칼리지 오브 더 바이블 계간지>(the College of the Bible Quarterly) 1958년 7월

6) 신약학에서의 양식비평(Formgeschichte)의 대표적인 학자들은 카를 루트비히 슈미트(Karl Ludwig Schmidt, 1891~1956), 마르틴 디벨리우스(Martin Dibelius, 1883~1947), 루돌프 볼트만(Rudolf Bultmann, 1884~1976) 등이었다. 슈미트는 <역사적 예수의 구성>(Der Rahmen der Geschichte Jesu, 1919)에서 복음서를 전승 자료들의 수집이라고 보았다. 디벨리우스는 <복음서 양식사>(Die Formgeschichte des Evangelium, 1919)에서 복음서의 내용을 예증들(Paradigms), 설화들(novellen or tales), 어록들(sayings), 전설들(legends), 신화들(myths)이란 다섯 개의 양식들(forms 혹은 units)로 구별하였으며, 이들 전승들은 선교적인 필요성에 따라 설정되었고, 설교 속에 존재하였으며, 후에 발전된 양식에 첨가되었다고 주장하였다. 볼트만은 <공관복음서 전승사>(Die Geschichte Der Synoptischen Tradition, 1921)에서 크게 두 개의 양식 곧 예수의 말의 전승과 설화자료의 전승으로 나눈 후 다시 아포프테그마(논쟁대화, 사제대화, 전기적 아포프테그마), 주의 말(로기온, 예언자의 묵시적 말, 율법의 말과 교회 규율, 나-말), 이적 설화 그리고 역사 설화와 전설이란 네 개의 양식들로 구별하였으며, 이들 전승들은 초기 그리스도교 공동체의 창작(개작, 조작) 또는 신앙고백이라고 주장하였다. 역사적 예수에 대한 탐구는 옛 탐구(old quest)학파와 신 탐구(new quest)학파로 나뉜다. 알버트 슈바이처 박사가 옛 탐구학파에 속한다면, 신 탐구학파는 1950년대에 군터 보른캄(Gunther Bornkamm, 마태복음 연구), 빌리 마르크센(Willi Marxsen, 마가복음 연구), 한스 콘젤만(Hans Conzelmann, 누가복음 연구)과 같은 편집비평(Redaktionsgeschichte) 학자들을 말한다. 편집비평학자들은 복음서 저자들을 역사가로 보기보다는 신학자, 해석자, 편집자로 간주하였다.

호 17쪽의 ‘설교로써 종말론’(Christology as Sermon)에서 발견된 인용문 끝에서 학생과장 윌번(Wilburn)은 거의 같은 것을 실제로 말하고 결론을 내립니다. 인용합니다.

“요컨대, 성경이나 예수의 가르침이 어떤 의미에서 권위로 간주될 수 있는지에 대한 전체 질문이 문제가 되어왔다. 오래된 정통적인 의미에서 이 믿음은 더 이상 가능하지 않다.”

‘환원 원리 비평’(A Critique) 339쪽에 있는 인용문 끝. 그런 다음 학교를 장악하기 위한 자유주의(신학)자들의 투쟁에 관해 선교회의 임원들 중 한 명인 스티븐 J. 코리(Stephen J. Corey)는 말합니다. 인용합니다.

“그 결과는 교육 기관에 대한 우리 형제애의 흐름을 정말로 바꿔놓았다. 오늘날 성경대학(College of the Bible)의 교수진이 그토록 무익하게 표명한 것은 주로 그리스도의 제자들 고등교육위원회(Board of Higher Education of Disciple of Christ)의 회원 자격을 보유한 모든 학교들의 교수진의 신념과 작동 원리가 되었다.”

그것은 55쪽과 <공격과 논쟁의 50년사: (그리스도의 제자들 사이의 결과)>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3. 교회의 헌장으로써의 환원과 신약성경을 거부[3. Rejection of restoration and New Testament as church’s constitution.]

또한 우리는 이 세 권의 책에서 이 학자들의 패널이 신약성경 교회로의 환원개념을 거부하고, 교회의 헌장으로써의 신약성경 개념을 거부한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다시 우리는 제가 앞에서 언급한 학장과장 오스본이 그의 연설에서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인용합니다.

“그 슬로건 곧 환원주의자적 원시 그리스도교, 그것의 교리, 그것의 의식들(참례와 주의 만찬), 그것의 진리로 이 관심을 표명한 우리의 선구자들(fathers)은 환원주의(restorationism)가 사도성(apostolicity)에 대한 잘못된 시도였었다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었다.”

4. ‘개방회원제’(open membership)의 실천[4. Practice of “open membership.”]

5. 에큐메니칼 열망에 의해서 초교파적 지위를 거부[5. Rejection of undenominational status linked to ecumenical aspirations.]

6. 인위적인 수단을 기본적인 신앙이나 교리의 수준으로까지 높임. 참조: 13건의 법정 소송들과 제자들의 주장[6. Elevating of human expedients to level of basic faith or doctrine. Cf. the 13 court cases and the allegations of Disciples.]

고대 교회에서 기록된 모든 관행은 아무리 우연한 것이라도 항상 일부를 철갑(鐵甲) 패턴으로 구성했다는 것은 가정입니다. 결국 나중에 이렇게 말합니다. 인용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특히 중요한 에큐메니칼 미래로써 우리의 삶의 영역에

대한 하나의 그리스도교 교단으로서 우리 자신이 기능하는 것을 존중한다.”

이것들은 형제애 구조와 신학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그들이 환원에 대한 거부를 에큐메니칼 열망과 연결하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그가 언급하고 또 그가 시인한 오스본(Osborn)에서 더 지적됩니다. 인용합니다.

“제자들이 의식적으로 일하고 있고, 또 더 합리적이고, 더 내면에 만들어진 교회 구조는 건전하다. 우리는 그러한 것을 인식하고, 그것으로 인하여, 헌장과 부칙에서 분명한 진술을 통한 각 회중, 형제애 프로그램에 대한 헌신의 확고한 원칙의 실질적 이행과 책임 있는 협력 구조에서 모든 발전을 장려하는 것이 현명하다.”

자, 왜 이 모든 것이 이행되어야합니까? 학생과장 오스본은 우리에게 아주 분명하게 말합니다. 인용합니다.

“이렇게 해야만 우리가 대회를 통해 교회 협의회들(Councils of Churches) 회원 자격을 가지고 에큐메니칼 운동에 관여하고 책임 있는 기관들을 통해 그 일에 참여하는데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 그래야만 미래의 가능한 버전(version, 형태)으로의 성공적인 모형과 연합교회(United Church) 안에서 더 폭넓은 삶을 찾기 위해 (그리스도의)제자들로서의 우리의 삶을 손해 볼 어떤 희망이 있는가?”

그런 다음 그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인용합니다.

“교회주의가 성장하고 있다. 에큐메니칼 운동은 교단 위에 세워진다. 교단의 합병으로 진행되는 연합은 점점 더 (그리스도의)제자들이 자신들을 하나의 교단으로 보게 하고, 언젠가 회복된 구조를 통해 보다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교회 제도를 추구하게 한다.”

해프닝이 있었던 것은 이렇습니다. 이들 (그리스도의)제자들의 지도자들 곧 이들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여기 우리나라에서 에큐메니칼 운동의 창립멤버가 되었습니다. 1906년 초에 미국연방교회협의회(Federal Council of Churches of Christ in America)가 공식화되었고,⁷⁾ 차례대로 1950년에 전국기독교교회협의회(National Council of Churches of Christ, NCC)로 알려진 더 큰 조직의 회원교단이 되었으며, 1948년에는 세계교회협의회(World Council of Churches of Christ, WCC)의 회원교단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프닝이 있었던 것은 이렇습니다. 이들 (그리스도의)제자들의 지도자들은 이들 에큐메니칼 결합체들에 참석할 때 오히려 좌절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결합체는 교단에서 만들어졌고, 그곳에서 존경받는 대표가 그들의 전체 교단을 위해 공식적으로 권위를 가지고 발언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들 (그리스도의)제자들의 지도자들은 그들 자신이 전혀 그러한 위치에 있지 않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모든 그리스도교회들(Churches of Christ)과 그리스도인의교회들(Christian Churches)은 개교회가 자치권을 갖는 자치제도(locally autonomic self-governing)였습니다. 그들은 오직 그들 자신만을 대표합니다. 그들은 전체 (환원)운동권을 위해 발언할 수 없습니다. 또 그래서(그런 이유 때문에) 그들은 이 재구성 과정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은 하나의 진정한 교단이 될 수 있고, 결국 그런 다음 교단으로서 에큐메니칼 결합체에 참여하며, 공식적으로 권위를 가지고 전체 (환원)운동권을 대변합니다. 이것이 이 모든 발전의 배후에 있는 근본적인 이

7) FCC 곧 연방교회협의회는 2년 뒤인 1908년에 창립되었다.

유였습니다.

II. 교회들의 방침결정[II. Orientation of the Churches.]

A. 교육부(그리스도의제자들) 및 그것의 교과과정위원회에서 준비한 자료들 - 1945 (베다니출판사 및 그리스도인출판부)[A. The Division of Education (Disciples of Christ) and materials prepared by its curriculum committee - 1945(Bethany Press and Christian Board of Publication).]

글쎄요, 그들은 신학교에서 수학한 설교자들인 지도자들을 성공적으로 세뇌시켰습니다. 이들 교육받은 지도자들, 이들 학자들은 이제 공식적으로 자유주의 신학을 채택하였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들이 어떻게 지역 교회들에게 이것을 받아들여지게 할 것인가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제공된 프로그램을 시작하였고 이 신학문과 지식 곧 이 자유주의 신학에로 교회들이 일정하게 향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제자들교육부(the Division of Education of the Disciples of Christ)를 통해서 이루어졌고, 자료들은 그것의 교과과정위원회에서 준비하였습니다.

B. 성경학교들, 선교단체들, 청년회들 등을 위한 준비[B. Prepared for Bible schools, mission groups, young people's societies, etc.]

이 특별한 점에 있어서 매우 매우 솔직히 언급된 내용을 저와 함께 다시 한 번 주목해 주십시오. 1945년 9월 당시 켄터키 주 렉싱턴 시에 소재한 성경대학(the College of the Bible)의 종교교육학 교수였던 마이런 T. 하퍼(Myron T. Harper)가 “제자들과 종교교육”이라는 제목으로 성경대학회보(the College of the Bible Bulletin)에 이런 글을 실었습니다. 들어보십시오. 인용합니다:

“제자들은 종교교육분야에서 연구자료 개발에 앞장서 왔습니다. 교과과정위원회는 적절한 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일하고 있었습니다. 이 위원회의 사역 범위는 확장되어 교회학교 수업들, 선교 스터디그룹들, 청년회들, 리더십 교육 및 삶을 위해 교단(brotherhood) 내에서 발행된 모든 자료들을 포함하였습니다. 이 위원회의 사역은 최고의 교육이론을 바탕으로 진행되었습니다. 표면적으로...”

이제 이것을 들어보십시오.

“표면적으로 이것은 성경을 믿는 사람들이라는 제자들의 전통적인 관점에서 볼 때 놀라운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이 이론 때문에 사람들은 성경 내용들의 직접적인 가르침이라는 오래된 개념에서 벗어나 하나의 출발을 하였습니다. 제자들의 교육 지도자들은 연구에서 경험과 관련이 없는 책의 내용을 가르치는 것의 유용성을 분명히 따짐으로써 보다 적절한 교육이론을 수용하였습니다. 제자들에 대한 상식적인 태도가 전면에서 나서 성경내용 이론을 포기하게 하였습니다. 개 교회들....”

이제 이것을 들어보십시오.

"개 교회들은 최상의 교육이론들과 절차들을 수용하는 (그리스도의)제자들의 교육만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니다.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은 인도하기 위하여 그것과 경

험한 것을 사용하는 대신에 여전히 성경을 가르칠 것을 고집하였습니다." 인용 끝.

그래서 이제 이 과정이 시작되었습니다. 미주리 주 세인트루이스 시에 있는 베다니 출판사(Bethany Press)와 그리스도인출판부(Christian Board of Publication)는 성경 학교들, 선교단체들, 청년회들 등을 위한 준비를 시작하였습니다. 이 모든 자료들은 이 새로운 학습, 이 새로운 지식, 이 자유주의 신학에서 그들을 세뇌시키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들 중 일부의 표본 추출에서처럼, 예를 들면, 연합그리스도인선교회(United Christian Missionary Society) 산하 재일본 선교사들 가운데 한 사람인 제시 트라우트(Jessie Trout)⁸⁾가 기사를 써서 UCMS(United Christian Missionary Society)에 보낸 것은 1939년이었습니다. 그 선교회는 그것에 깊은 인상을 받아 그것을 인쇄하여 이 운동권에 속한 모든 여선교회들에 발송하여 그들의 월례회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자, 이것이 그녀가 말해야 할 내용입니다. 저는 이 기사 일부 초록을 인용하고자합니다. 인용합니다:

“학계 비평가들이 해외선교에 대해 제기한 주요 비판들 중 하나는 선교가 선교사들이 와서 섬기는 사람들의 종교들과 신앙들을 허물어뜨린다는 것입니다. 다행히도 많은 현대 선교사들은 동양 종교들에서의 가치들을 인식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지금보다 더 우월한 입장에서 그들의 문제들에 접근하지 않고 열린 지성들과 심정들로 합니다. 그들은 말하기를, ‘그대들이 놓으신 좋은 기초 위에서 다 같이 일합시다. 그리고 함께 온전하고 완전할 하나의 종교를 세웁시다.’고 합니다.”

그런 다음 그녀는 이 기사에서 유교와 불교에 대해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인용합니다:

“확실히, 이들 종교들에서의 발견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증거들이었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교는 동양의 선지자들로부터 공통된 진리와 가르침을 확실히 찾을 수 있습니다.” 그녀는 말하기를, “만약 동양에서 변형사건이 일어난다면, 현대 선교들이 이것 곧 그리스도교가 이방 종교들과 손을 잡을 수 있고 행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변형 산에서 부처와 공자와 담화하시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이라고 나는 생각했습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이 여선교사는 변형산에 모세와 엘리야가 있기보다는 예수님과 부처와 공자가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확실히 이런 종류의 가르침은 그 같은 운동권에서는 적절하지 않습니다.”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이 가르침은 예외적인 것이었을까요? 들어보십시오. 오하이오 주 신시내티 시에 소재한 <신시내티 신문>(the Cincinnati Newspaper)이 이렇게 말한 것은 1949년 10월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것들을 인용합니다.

“인디애나폴리스에 거주하는 제시 M. 트라우트(Miss Jessie M. Trout)는 어제 그리스도의 제자들의 국제대회총회에서 연합그리스도인선교회 부총회장으로 선출되었습니다

8) 제시 메리 트라우트(Jessie Mary Trout, 1895-1990)는 태평양 전쟁이 발발하기 전까지 일본에서 거의 20여 년간 사역한 캐나다 출신의 선교사로서 그리스도의 제자들의 지도자로서 여성 최초로 연합그리스도인선교회 부총회장을 역임하였다. 그리스도인여성친목회(Christian Women's Fellowship, 1950)와 국제그리스도인여성친목회(International Christian Women's Fellowship, 1953)의 공동 창립자였다. 1955년에 베다니대학에서 명예신학박사학위를 수여받았다.

다. 제시 트라우트가 선출된 그 직위는 (그리스도의)제자들 교단(brotherhood)에서 가장 높은 직위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제 그들이 우리의 교회들에서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같은 방향으로 향하게 할 것 인지를 봅시다. 여기에 여선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은 다른 분야들에서 성인들에게 특별히 초점을 맞췄습니다. 국제대회 전 회장이었던 레슬리 R. 스미스 (Leslie R. Smith)는 ‘예수 이해’(Understanding Jesus)라는 제목의 <베다니 학년별 계간>(Bethany Graded Quarterly)에서 성경학교 교사들에게 W. D. 데니(W. D. Denny)의 책, <예수의 명확함과 중요성>(The Clear and Significance of Jesus)를 언급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이 누구이셨는지를 더 잘 이해하려고 나쁜 상황을 고착시켰습니다. W. D. 데니가 신약성경에 관하여, 소위 예수의 신성에 대한 이론들에 관해 무엇을 말해야하는지를 들어보십시오. 여기에 그가 성경학교 교사들에게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인용합니다:

“그들 중 일부, 아마도 전부, 우리는 분명히 크게 성장하였습니다.”

그런 다음 그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하여 성경학교 교사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인용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이들 이야기들을 놀랄만한 불가사의한 이야기들로 받아드리기 어렵게 느낀다. 그 이야기들이 그분의 추종자들 사이에서 보이지 않게 임재하시는 예수님을 실제적이고 생생한 진리로 만들고 싶은 경건한 상상과 열망에서 자란 것이기 때문이다.”

이들 인용구절들에서 먼저 것은 그 특정한 책 335쪽에, 마지막 인용문은 320-321 쪽에서 발견됩니다. 그리고 그는 거기서 예수님에 관해서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인용합니다:

“역사적으로나 지리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그렇게 제한된 사람이 종교에 대한 자신의 중요성에서 영구적으로 최고일 수 있다고 합리적으로 말할 수 있습니까?” 인용문 끝. 447쪽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런 다음 우리의 교회들의 젊은이들은 이 새로운 세뇌를 위한 주요 대상이 되었습니다. 연합그리스도인선교회의 교과과정위원회의 지시에 따라 그리스도인출판위원회 편집자들은 1946년 초에 <그리스도인 청년 친목회 계간>(Christian Youth Fellowship Quarterly)과 <두 번째 계간>(the Second Quarterly)을 준비하였습니다. 여기 성경에 관하여 우리가 읽는 것이 있습니다. 인용합니다:

“태초에 관한 많은 이들 이야기들에서 허구가 언제 끝나고 진실이 언제 시작되는지를 말하기란 정말 어렵습니다.”

그것은 66쪽에 나옵니다. 그런 다음, 메리 라이먼(Mary Ryman)이 쓴 청년 친목회의 책, <예수>(Jesus)에서 젊은이들이 이것에 대해서 듣습니다. 인용합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예수님의 지식의 한계를 알아야 할 필요성을 직시해야 합니다. 오늘날 어린이는 예수님이 가질 수 있는 것보다 우리가 살았던 물리적 세계에 대해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날 과학연구에 있어서 초보자라도 자연에 관한, 우주에 관한, 예수님이 결코 꿈꾸지 못했던 것에 관한 사실들을 알고 있습니다.”

그 인용문은 그 책의 48쪽에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여기에서 선택하십시오. 요한은 자신의 복음서 서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 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히브리서의 서문을 들어보십시오.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그러나 이 여성은 우리의 젊은이들에게, 심지어 오늘의 어린이들에게조차 자연에 대해 우주에 대해 예수님이 가질 수 있었던 지식보다 더 많은 지식을 갖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이 자유주의 신학이 취한 방향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교회들은, 그들이 이 배교와 환원운동의 역사적 위치와 교리적 입장에서 일탈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이들 선교단체들과 이들 대학들에 대한 그들의 지원을 모두 끊고 이들의 대회들에 참석하는 것을 그만두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조직 생활을 신봉하는 저들이 제기한 무리한 소송들은 더 이상 금전이나 그들의 참석으로 그들을 지지하지 않을 개 교회들의 재산들의 소유권을 빼앗으려고 애썼습니다. 약 14개 주들에서 개 교회들을 상대로 제기된 소송의 근거는 단체(firm)였던 이들 교회들이 그리스도의제자들 교단의 영속된 교리들과 관습들과 용법들에 대한 그들의 신뢰로 인해 감명을 받아왔다는 것과 그들의 실패로 인해 재정적으로 또 참석으로 이 교단에 대한 후원을 중단하였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사실 그들은, 이들 개 교회들의 단체(firm)였고, 그들은 뭔가 다른 것으로 갔고, 그들의 입장을 바꿨으며, 새로운 교단이 되었고, 따라서 재산들의 소유권을 박탈당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주님께 감사를! 진실과 역사가 이겼습니다. 이들 사건들이 재판을 받은 모든 주(州)에서의 모든 항소 법원은 개 교회들의 입장을 지지하였습니다. 그들은 어떤 기관의 후원여부가 그리스도의교회로서 및 그리스도인의교회로서의 교회 지위와 관련이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들은 역사적으로 모든 개개 그리스도의교회 또는 개개 그리스도인의교회가 개 교회적으로 자치적이었고 그리스도인의교회로서 혹은 그리스도의교회로서의 그것의 지위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어떤 기관을 후원할 수도 있고, 후원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선언하였습니다.

이들 발견들은 영향을 미칩니다. 그런 다음 사실상 이 환원운동의 원래 교리들과 관행들에서 실제로 이탈한 제자들이 있었다는 것을 지적하였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세뇌시키는 것에 실패하였습니다. 그들은 각 교회에 대한 자신들의 주장을 힘써 법적으로 확립하려고 소송들에 나섰고, 그것에 실패하였습니다. 그들은 이제 마침내 그들이 ‘재구성’(restructure)이라고 부른 것에 귀착하였습니다.

III. 재구성 - “60년대 - 결정의 10년”[III. Restructure - “The Sixties - A Decade of Decision.”]

A. 그것이 무엇인지 - “책임 있는 자유”를 허용하는 교회 정부의 계획 - 위계(位階)[A. What it is - a plan of church government allowing “freedom with

responsibility” – lines of authority.]

60년대는 “결정의 10년”(Decade of the Decision)으로 언급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결정의 10년 곧 이 재구성이 계획한 것은 단순히 이것이었습니다. 이른바 “책임 있는 자유”를 허용하는 교회 정부의 계획이었습니다. 그것은 위계(位階)를 약속하였고, 모든 개 교회가 그들의 정관과 그들의 세칙들을 수정하게 하여 그들이 개 교회를 공식적으로 그리고 법적으로 그리스도의 제자들의 조직화된 구조와 사업에 묶는 방식으로 노력하였습니다.

B. 그것의 목적 – 오스본(Osborn)과 다른 사람들이 진술한 대로 교단 및 에큐메니칼 지위를 획득하는 데 필수적[B. Its purpose – essential to the acquisition of denominational and ecumenical status as stated by Osborn and others.]

물론 그것의 목적은, 학생과장 로널드 오스본(Ronald Osborn)과 다른 사람들이 이미 지적하였듯이, 교단 및 에큐메니칼 지위를 얻는 데 필수적이었습니다.

C. “그리스도인의교회”(그리스도의제자들)라는 새로운 교단이 1968년 9월 미주리 주 캔자스시티 시에서 투표를 통해 결정됨[C. A new denomination “The Christian Church”(Disciples of Christ) voted into existence in Kansas City, Missouri, September, 1968.]

그래서 “그리스도인의교회”(The Christian Church), 괄호 속에 (그리스도의제자들, Disciples of Christ)이라고 불리는 새로운 교단이 1968년 9월 미주리 주 캔자스시티 시에서 투표를 통해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결론[CONCLUSION]

이들 재구성자들(Restructurists)은 이제 그리스도교계를 분열시킨 바로 그 인위적인 신제도들을 수용하는 유권자들을 갖게 되었습니다. 또 그들은 환원운동을 처음 발생시킨 발단이었던 바로 그 관행들과 존재인 바로 그 교단들에 그들을 합류하게 합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들을 그들이 빠져나온 바로 그 상태로 되돌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재구성은 기본적으로 환원운동과 맞서는 이슈(issue)가 아니었습니다. 재구성은 원인이 아니라 결과였습니다. 배도나 불신앙이 이슈이거나 원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런데, 오늘날 모든 그리스도교계에서 야기된 문제입니다. 우리의 거의 모든 주요 교단에서 그것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것들, 무류하고 권위 있는 그분의 성경, 그리스도의 신성 등을 믿지 않고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것입니다.

본래적이고 근본적인 믿음의 각 지점, 그리고 본래적인 근본 교리들과 관행들의 각 지점에서 이들 자유주의 지도자들에 의한 급진적인 이탈이 있었습니다.

오늘날 결정을 내리는 교회들과 개인들은 성경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들의 견

해와 태도에 근거해서 그들의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그 이슈는 성경을 권위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과 그분의 교회의 유일한 머리로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들로 만족됩니다.

성경과 역사 속에서의 교회(The Church in the Bible and in History)

강연: 하비 C. 브림 2세(Harvey C. Bream, Jr.)

번역: 조동호

제6부 환원운동(1923-1974)(부활)[PART VI THE RESTORATION MOVEMENT (1923-1974) (Resurgence)]

서론[INTRODUCTION]

이 강의 시리즈의 제목은 ‘성경과 역사 속에서의 교회’입니다. 첫 번째 강의는 ‘그것(신약성경교회)이 어떻게 시작되었는가?’(How It All Began)를 다루었습니다. 우리는 주후 30년 예루살렘 도시에 교회를 설립함으로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회복되어야 할 이 교회의 여섯 가지 주요 특성을 고려하였습니다. 두 번째 강의는 ‘무엇이 교회에 잘못되었는가?’(What Went Wrong with the Church)를 다루었습니다. 우리는 배교, 믿음으로부터 타락, 신약성경 규범으로부터 이탈을 살펴보았습니다. 결과적으로 그것들은 역사가가 세계 역사의 암흑시대 또는 중세시대라고 부르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세 번째 강의는 ‘돌아오는 길’(The Road Back) 즉 그리스도교(개신교) 개혁을 다루었습니다. 그것은 교회의 남용을 바로잡기 위한 노력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한 많은 이러한 그리스도교(개신교) 운동들이 어떻게 왜 시작되었는가를 밝혀드렸습니다. 네 번째 강의는 ‘하나의 새로운 시작’(A New Beginning)을 다루었습니다. 다양한 교단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신약성경 곧 그것의 교리들과 의식들(침례와 주의 만찬)과 공통의 만남의 장을 찾는 삶을 좇는 교회를 회복하려는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러고 나서 우리는 다섯 번째 강의인 ‘또 다른 잘못된 방향전환’(Another Wrong Turn)에 다룹니다. 여기서 우리는 20세기의 배도, 이 위대한 운동을 거의 황폐화시킬 뻔한 종교계에 대한 자유주의 신학의 비극적인 침입을 다루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 운동의 부활인 여섯 번째 강의인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기’(Getting Back on the Track)에 다룹니다.

I. 로버트 E. 엘모어가 해외그리스도인선교회 내(內)의 “개방 회원제”를 폭로. 스탠 더드 출판사가 폭로들을 출판[I. Exposure of “open membership” in Foreign Christian Missionary Society by Robert E. Elmore. Publishing of revelations by Standard Publishing.]

1911년에 해외그리스도인선교회(Foreign Christian Missionary Society)의 집행위원회의 통신서기이자 사무총장이었던 로버트 E. 엘모어(Robert E. Elmore)가 해외그리스도인선교회 내(內)의 “개방 회원제”를 폭로한 것을 우리가 인용했던 것을 상기하십시오. 로버트 E. 엘모어는 이러한 사실들을 형제들에게 공개하고 그것들을 알리는 것을 거부당하였기 때문에 자신의 도덕적 무결함을 향유(享有)하기 위해 해외그리스도인

선교회를 사적하였습니다. 그런 다음 그는 이 모든 사실들과 폭로들이 스탠더드 출판사(Standard Publishing Company)에 의해 공개되도록 하였습니다.

II. 신실한 남은 자들의 집결[II. Rallying of faithful remnant.]

그런 다음 신실한 남은 자들의 집결에 전념하였습니다.

I. 클라크 기금의 설립(1923)[I. Formation of Clarke Fund (1923)]

A. 단체를 조직함 - 오하이오 주 신시내티 시에 소재한 리치몬드가(街)그리스도인의교회 - 초창기 “독립” 선교사 단체들에서 이사들로 활동하는 장로들[A. Organizing body - Richmond Street Christian Church, Cincinnati, Ohio - elders acting as trustees, among the earliest “free” missionary agencies.]

B. 목적들 - 신약성경의 탄원이 없는 지역들에서의 복음화; 신약성경 패턴을 따른 교회들 개척하기, 문을 닫은 교회들 다시 열기 등[B. Purposes - evangelizing in areas destitute of the New Testament plea; establishing churches after the New Testament pattern, reopening closed churches, etc.]

우리가 과거로 조금 거슬러 올라가보면 19세기 후반에 일어난 흥미로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재력가인 시드니 S. 클라크(Sidney S. Clarke)라는 이름의 한 그리스도인 신사가 자신이 작성한 유언장에서 자신이 죽은 후에 수탁자를 세워 수입으로 미국 전역에 나가 이 신약성경의 탄원을 알지 못하는 다양한 지역들에서 신약성경의 이상을 좇아 교회들을 세우려고 노력하는 전도자들의 봉급을 지불하는 데 쓰라고 명시하였습니다.

결국 오하이오 주 신시내티 시에 있는 다운타운 리치몬드가(街)그리스도인의교회의 장로들이 이 특정 클라크 재산(Clarke Estate)의 수탁자(이사)들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몇몇 교회들과 형제들이 이 클라크 재산의 이 존재에 대해 들었을 때, 그들은 (이것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었던) 리치몬드가(街)그리스도인의교회에 선교 기부금들과 헌금들을 보내기 시작하였습니다. 이 법적 전문적 방법으로 인해 이 기금이 유효하게 작용하거나 클라크 재산의 일부가 되는 것이 불가능하였습니다. 그래서 리치몬드가(街)그리스도인의교회의 장로들은 그들이 클라크 기금(Clarke Fund)이라고 부른 것(재단)을 설립하여 미국 전역의 교회들과 형제들로부터 이들 선교 헌금들과 기부금들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다음 이 기금은 클라크 재산에서 들어오는 수입과 함께 유효하게 작용하였고 이들 전도자들을 고용하여 그들을 미국 전역에 파송하였습니다.

C. 한 달에 거의 한 개의 새로운 교회가 설립되었고, 거의 같은 수의 문 닫은 교회들이 초기에 연간 1,000명 이상의 침례로 다시 문을 열었음[C. Almost one new church a month established and about the same number of closed churches reopened with over 1,000 additions a year in the early years.]

이 노력의 결과로 매달 거의 한 개의 새로운 교회가 세워지고 있었습니다. 거의 같은 수의 문 닫은 교회들이 클라크 기금의 초창기 이 수년간 고용된 5-8명의 전도자들의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매년 거의 1,000명이 그리스도를 믿고 침례를 받는 감동적인 결과로 다시 문을 열고 있었습니다.

II. 2개의 새로운 학교들의 설립[II. Formation of two new schools.]

A. 맥가비성경대학과 신시내티성경학교 - 1923. 목적 - 불신앙의 물결을 막고 신실한 복음 사역을 준비하기 위함[A. McGarvey Bible College and Cincinnati Bible Institute - 1923. Purpose - to stem the tide of infidelity and to prepare a faithful gospel ministry.]

그러나 그 운동이 자유주의 신학의 침투로 한때 도합 33개가량의 훌륭한 학교들에서 겪었던 쟁탈전에서 연이은 패배를 당했기 때문에 우리가 신실한 복음 성경 설교사역을 준비해야한다는 우려가 나왔습니다.

B. 클라크 기금의 후원 하에 합병. 신시내티성경신학교 - 1924[B. Merger under auspices of Clarke Fund. The Cincinnati Bible Seminary - 1924.]

초기에 설립되어 자유주의 신학에 굴복당한 훌륭한 학교는 켄터키 주 렉싱턴 시 트란실바니아에 소재한 유서 깊고 권위 있는 성경대학(College of the Bible)이었습니다. J. W. 맥가비(McGarvey)는 크게 존경받는 성경학자이자 설교자였으며, 수년간 그 학교의 학장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죽자, 자유주의자들이 치고 들어왔고 모조리⁹⁾ 접수하였으며 도미노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음과 같은 우리의 훌륭한 학교들을 속속 빼앗기기 시작하였습니다. 현재 기독교신학교(Christian Theological Seminary)로 알려진 버틀러대학교(Butler University)에 있는 유서 깊은 종교학교(School of Religion); 텍사스 주 포트워스에 소재한 텍사스기독교대학교(Texas Christian University)에 있는 유서 깊은 브라이트신학교(Brite Divinity School); 지금은 존재하지 않는 아이오와 주 디모인에 소재한 드레이크대학교(Drake University)에 있었던 드레이크신학교(Drake Divinity School); 신학교(Divinity School, Philip Theological Seminary) 즉 오클라호마 주 이니드(Enid)에 소재한 필립대학교(Philip University); 일리노이 주에 소재한 유레카대학(Eureka College); 카~?; 오하이오 주에 소재한 하이람대학(Hiram College), 오, 저의 부친께서 졸업하셨습니다; 베다니대학(Bethany College), 오, 저의 모친께서 다니셨습니다. 그 학교는 알렉산더 캠벨(Alexander Campbell)을 만족시키지 못하였습니다. 결국 우리는 자유주의 신학에 굴복한 고등교육에서 33개의 학교들을 빼앗겼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바로잡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1923년 켄터키 주 루이빌 시에서 유서 깊은 성경대학의 J. W. 맥가비

9) lock, stock, and barrel. 이것은 구식총의 방아쇠, 개머리판, 총열을 가리키는 말로써 몽땅 혹은 모조리를 뜻하는 상투 문구이다.

(McGarvey) 밑에서 수학했던 몇몇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과 함께 그들이 맥가비성경 대학(McGarvey Bible College)이라고 칭한 것을 시작하였습니다. 같은 해에 오하이오 주 신시내티 시에서 주로 스탠더드 출판사(Standard Publishing Company)의 후원 하에 다수의 편집자들이 교수로 봉사하고 있었던 신시내티성경학교(Cincinnati Bible Institute)라고 불린 것을 설립하고 있었습니다. 이들 학교들은 둘 다 매우 작았고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이 두 학교들 모두의 주요 재정지원은 인디애나 주 콜럼버스 시에 소재한 현재 제일그리스도인의교회(First Christian Church)로 불리는 영향력이 큰 태버네클그리스도인의교회(Tabernacle Christian Church)였습니다. 그 매우 유명한 설교자는 W. H. 북(Book), 곧 윌리엄 헨리 북(William Henry Book)이었습니다. 북(Book) 형제는 이들 작은 두 학교들 모두에 접촉하여 그들 두 학교들이 지근거리에 붙어있고, 재학생들도 소수에 불과하며, 존립의 귀로에서 고군분투하는 것은 정말 형편없는 청지기적분이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들 두 학교들이 합병할 것을 제안하였고, 만일 그들이 합병하지 않으면, 태버네클교회는 필시 그들 모두에 대한 지원을 중단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오, 이것은 미국 전역의 다른 형제들과의 경쟁에서 꽤 훌륭한 자극이었습니다. 합병이 이뤄졌습니다. 오하이오 주 신시내티 시에 소재한 리치몬드가(街)그리스도인의교회의 클라크 기금의 초청 때 이들 두 학교들은 1924년 오하이오 주 신시내티 시에서 그들의 후원 하에 합병되었고 알려지게 된 대로 신시내티성경신학교(Cincinnati Bible Seminary)로 개편하였습니다. 이 합병의 결과로 신시내티성경신학교는 재학생 수 66명으로 시작하였습니다. 다음 해에 첫 졸업반에 다섯 명이 있었고, 그들은 문학사(BA) 학위들을 받았습니다. 학교가 성장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클라크 기금의 사업이 성장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 학교는 주로 불신앙의 물결을 막고 신실한 복음 사역을 준비할 목적으로 설립되었습니다.

III. 클라크 기금의 성장. 리치몬드가(街)그리스도인의교회로부터 분리 - 1925[III. Growth of Clarke Fund. Separation from Richmond Street Christian Church - 1925.]

A. 새 이름 - 그리스도인환원협회[A. New name - Christian Restoration Association.]

나. 목적 - 교육, 자선, 선교사역 등 이전과 동일[B. Purposes - same as predecessor including educational, benevolent and mission work.]

C. 간행물 - 이름이 <사실들>에서 <환원헤럴드>로 변경[C. Publication - name changed from *Facts* to *Restoration Herald*.]

클라크 기금이 성장하기 시작하면서 마침내 장로들이 제안하기를 이 조직이 개 교회 곧 리치몬드가(街)그리스도인의교회로부터 분리되어 자체 이사회가 관리하도록 하고, 그 이름을 클라크 기금에서 그리스도인환원협회(Christian Restoration Association)로 변경시켜야 한다고 하였으며, 그 이름이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신시내티에 소재한 이 특정 단체를 위해서 전도자로 섬긴 18년과 월간지 <환원헤

럴드>(Restoration Herald)의 편집자로 섬긴 지난 10년간은 저의 특권이었습니다.

IV. 그리스도인봉사캠프운동(1927). 그리스도인환원협회가 마련한 12개 주들에 12개 캠프들[IV. Christian Service Camp Movement (1927). Twelve camps in 12 states arranged by Christian Restoration Association.]

그러나 그 일은 그리스도인환원협회(Christian Restoration Association) 아래에서 계속해서 성장하였습니다. 그들은 새로운 교회들을 개척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설교자들을 어디서 구할 것인가? 우리가 성경 대학을 위한 신학생들을 어디서 구할 것인가?”라는 물음이 생겼습니다. 그 당시 그리스도인환원협회의 이사들 중 한 분이 O. A. 트린클(Trinkle) 형제였습니다. 그는 인디애나 주에 소재한 대형 그리스도인의교회인 인디애나폴리스 시에 있는 앵글우드그리스도인의교회(Englewood Christian Church)의 목사였습니다. 그는 협회의 모임들 중의 한 모임에서 제안하기를, 그가 그리스도인청년회의들(Christian Youth Conferences)로 호칭한 12개를 12개의 다른 주들에 설립시켜야 하며, 그들은 우리 지역 교회들의 젊은이들에게 잠재되어 있는 미개척 잠재력을 활용하기 위해 커리큘럼을 지배할 교수진을 확보해야 한다고 제안하였습니다. 그래서 1927년에 이러한 추진력은 그리스도인봉사캠프운동(Christian Service Camp Movement)으로 알려지게 된 것에 주어졌습니다. 몇몇 다른 캠프들은 주로 지방 교회들의 후원을 받아 이미 독립적으로 세워졌습니다.

A. 숫자가 1928년에 14개로 늘어남[A. Number increased to 14 in 1928.]

B. 그리스도교 사역과 리더십을 위해 개 교회들에 잠재되어 있는 엄청난 잠재력을 활용[B. Taps tremendous potential lying dormant in local churches for the Christian ministry and leadership.]

C. 개 교회들이 감독할 것을 촉구[C. Local churches urged to give oversight.]

이듬해 캠프들의 숫자는 14개 캠프와 14개 주로 증가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환원협회는 중앙집권적 또는 공식적 권위기관으로 여겨졌던 연합그리스도인선교회(United Christian Missionary Society)가 빠졌던 것과 동일한 함정에 빠지기를 원하지 않아서 새로운 캠프들이 위치한 이러한 다양한 지역에 소재한 개 교회들에 눈을 돌렸고 개 교회들이 이 캠프 프로그램을 그들의 지역구로 가져가 관리하고 감독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대로 되었습니다. 그 운동은 눈에 띄게 성장하였습니다.

V. 직접후원선교의 계기[V. Momentum of Direct-Support Missions:]

A. 연합그리스도인선교회가 예양(타국의 법률, 습관 등을 존중)과 “개방회원제”에 협력할 것을 거부한 레슬리 울프 선교사를 필리핀에서 소환[A. U.C.M.S. recall of Leslie Wolfe from Philippines for refusal to co-operate in comity and “open membership.”]

1. 궁지에 몰린 울프 선교사에게 그리스도인환원협회가 전신환으로 자금을 조달[1. Funds cabled by C.R.A. in response to Wolfe dilemma (1927).]

이 동시대에 지금 우리는 오래된 해외선교회(Foreign Missionary Society)와 그리스도인여성선교국(Christian Women Board of Mission)을 떠난 몇몇 베테랑 선교사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들의 교리적 입장이 그들의 선교회가 현재 채택해온 자유주의 신학과 양립할 수 없었음을 발견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연합선교회가 마련하고 있었던 예양협정(禮讓協定, comity agreements)에 협력하기를 거부하였기 때문에 이들 선교사들은 본국으로 소환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첫 번째 경우는 필리핀 제도의 베테랑 선교사인 레슬리 울프(Leslie Wolfe)의 경우였습니다. 그는 배교(背敎) 프로그램에 협력하기를 거부하였기 때문에 소환 당할 때, 그런 까닭에 그가 받던 선교후원금도 끊겼습니다. 그는 필리핀에서 자신의 삶을 바쳐 일궈온 사역을 포기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인환원협회에 전보를 보내 그것이 발생한 진퇴양난을 설명하였습니다. 그리고 즉시로 그리스도인환원협회(Christian Restoration Association)는 레슬리 울프(Leslie Wolfe)에게 전신환으로 자금을 보냈고, 그에게 선교지에 남으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들은 형제들에게 그를 후원해달라고 호소하고 있었습니다.

2. 일본의 Cunningham과 Madden의 지원에 대한 계속적인 항소; 남아프리카 연합의 C. B. Titus; 멕시코의 E. T. Westrup; 중국과 티베트의 Russell Morse[2. Ensuing appeals for assistance from Cunningham and Madden in Japan; C. B. Titus in Union of South Africa; E. T. Westrup in Mexico; Russell Morse in China and Tibet.]

몇 명의 충실한 선교사들의 도움을 요청하는 다른 호소들이 잇따라 빠르게 나왔습니다. 하나는 일본 도쿄에서 사역하는 W. D. 커닝햄(Cunningham)과 M. B. 매든(Madden) 형제에게서 왔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남아프리카 연방에서 선교사역을 하는 C. B. 티투스(Titus) 형제에게서 왔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멕시코 몬테레이에서 사역하는 E. T. 웨스트럽(Westrup) 형제에게서 왔습니다. 그의 선교 사역지는 연합그리스도인선교회(United Christian Missionary Society)에 의해서 감리교단에 매각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인도, 중국, 티베트, 버마가 국경을 맞대고 있는 세계의 지붕을 섬기던 러셀 몰스(Russell Morse)로부터 호소가 왔습니다.

3. 그리스도인환원협회가 교회들에 호소 - 생활연계후원을 확보하고 개 교회들이 직접후원프로그램을 책임짐[3. Appeal to churches by C.R.A. - living-link support secured and local churches underwrite a direct-support program.]

그리고 그러고 나서 우리는 처음 몇 년 동안 여덟에서 열하나의 신실한 선교사 가족들이 있는 것을 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인환원협회의 해외 전도자들이 파송한 가족들입니다. 그리고 다시 환원협회는 중앙집중식 권위 있는 공식 기구로 해석되는 것

을 막기 위해서 미국 내의 많은 수의 대형교회들에게 편지를 써서 그들에게 그들의 생활연계선교사(living-linked missionary)로 이들 선교사들을 맡아(고용해)줄 것을 도전하였습니다. 응답한 첫 번째 교회는 오하이오 주 캔턴 시에 소재한 대형교회인 제일그리스도인의교회(First Christian Church)였습니다. 그 교회의 담임목사는 P. H. 웰시머(Welshimer)였습니다.¹⁰⁾ 그들은 그들의 생활연계선교사로 필리핀에서 사역하는 레슬리 울프(Leslie Wolfe)를 맡았습니다. 다음 응답은 오하이오 주 콜럼버스 시에 소재한 대형교회인 인디아놀라교회(Indianola Church)에서 왔습니다. 그 교회의 담임목사는 W. R. 워커(Walker)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일리노이 주 스프링필드 시에 소재한 웨스트사이드그리스도의교회(West Side Church of Christ)에서 응답이 왔습니다. 그런 다음은 캔자스 주 닷지 시티에 소재한 교회로부터 또 다른 응답이 왔고, 우리가 열하나의 신실한 선교사 가족들을 확보할 때까지 응답이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직접후원선교운동(direct-support mission movement) 곧 믿음으로 지지한 선교운동(faith-supported mission movement)으로 일컬어진 것이 시작되었습니다.

B. 북미주그리스도인대회와 출범(1927). 자유로운 그리스도인들의 친교모임; 교회들의 대회가 아님; 공식적이거나 권위 있는 조직체가 아님[B. Start of North American Christian Convention (1927). A fellowship of free Christians; not a convention of churches; not representative, official or authoritative.]

우리의 역사에서 이 같은 중대한 시기에 전국대회가 있었다는 그 사실로 인해 전국대회에서 가결된 결의(決議)들은 사실상 무효화되고 없었던 일이 되는 데까지 거듭 재해석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실망하여 1927년에 이들 형제들 중 많은 수가 탈퇴하였고, 그들은 북미주그리스도인대회(North American Christian Convention)로 알려지게 된 대회를 조직하였습니다. 북미주그리스도인대회는 바로 이 시간에도 마찬가지로 자유로운 그리스도인들의 친교모임이었습니다. 북미주그리스도인대회가 대표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교회들의 대회가 아니었고, 한 번도 교회들의 대회였던 적이 없습니다. 그것은 공식적 또는 권위 있는 조직체가 아닙니다. 그것은 단순히 형제들의 모임일 뿐이며, 복음을 전하고 친교하며 동기를 부여하여 국내와 세계 각국에서 우리 주님의 일을 하려는 것일 뿐입니다.

C. 신시내티신학교 그리스도인환원협회에서 분리(1928).[C. The Cincinnati Bible Seminary set apart from C.R.A. (1928).]

그런 다음 1928년에 성경대학 및 신시내티성경신학교가 급성장하자 그리스도인환원협회의 이사들은 그것을 환원협회와 분리시켜 자체 이사회를 가진 별도의 교육기관

10) P. H. 웰시머(Welshimer)는 <신약성경교회에 관한 사실들>(Facts Concerning the New Testament Church, http://kccs.info/facts_welshimer_track.pdf)로써 채이스 선교사가 1937년에 한국어로 번역하여 수년간 전도용으로 사용하였던 그리스도의 교회용 최초의 전도책자이다. 이 책으로 1937년에 김요한 목사, 최상현 목사(최윤권 목사 부친), 성낙소 목사, 김문화 목사, 박판조 목사, 백낙중 목사 등이 그리스도의교회에 대해서 학습하였다.

이 되도록 추구하였습니다.¹¹⁾

VI. 65년간의 믿음으로 공동노력[VI. Sixty-five Years of Cooperative Endeavor in Faith:]

A. 지역 및 지역 전반에 걸친 다양한 전도 협회들 및 남성 친목회들. 결과 - 현재 매년 수십 개의 새로운 교회들이 설립[A. Multiplicity of evangelistic associations and men's fellowships both local and area wide. Results - scores of new churches now established annually.]

그리고 이제 하나의 결과, 일어난 것으로써 우리는 이 재기가 이제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충실한 남은 자들과 함께 일하고 계셨습니다. 65년간의 공동노력, 조직구조의 응집력이 아닌 믿음 안에서의 공동노력 끝에 우리는 지역 및 지역 전반에서 다양한 전도 협회들과 남성 친목회들이 미국 전역의 주들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이 결과 신약성경의 이상을 좇아 수십 개의 새로운 교회들이 전국의 지역사회들에서 다시 확실히 재건되었습니다.

B. 36개의 성경 대학[B. Thirty-sixty Bible Colleges.]

1. 4,000명 이상의 학생들이 등록[1. Enrollment over 4,000.]
2. 급성장으로 인한 시설과 교수진 확충의 압박을 받음[2. Burgeoning growth exerting pressure on facilities and faculties.]

또한 우리는 그 사이에 36개의 성경 대학들이 생겨났고 오늘날 약 4,000명의 학생들이 등록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들이 급성장함으로써 시설과 교수진 확충의 압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C. 그리스도인봉사캠프들에서 약 800주간의 집회 개최[C. Approximately 800 weeks of Christian Service Camps.]

1. 약 100,000명이 등록[1. About 100,000 enrollments.]
2. 매년 1,500명 이상이 그리스도인으로 침례를 받음[2. Over 1,500 baptized into Christ annually.]

11) Cincinnati Bible College 및 Cincinnati Bible Seminary는 같은 신학교 내의 학부와 원부를 말한다. 그리스도의제자들(Disciples of Christ)의 연합그리스도인선교회와 대학(교)들 및 신학대학원들이 자유주의자들에 의해서 장악되자, 그리스도의제자들에서 탈퇴한 독립교회들이 성경신학의 보수를 위해서 세운 대부분의 대학들의 명칭이 'Bible College' 및 'Bible Seminary'였다. 그러다가 학생모집의 수월성과 생존을 위해서 'Bible'을 'Christian'으로 바꾸기 시작하였고, 2000년대에는 'College'에서 'University'로 개편이 시작되었다. 그런 노력들에도 불구하고 재정악화를 감당하지 못한 일부 대학(교)들은 폐교의 길을 걷게 되었다. 같은 이유로 1924년에 개교한 교단의 명문(名門)이었던 Cincinnati Christian University 및 Cincinnati Bible Seminary는 2019년 말에 폐교가 결정되었다.

3. 목회자 수급(전문 그리스도인 사역)을 위해 매년 700명 모집[3. About 700 recruits for specialized Christian service annually.]

그리고 또 하나의 성장 이야기는 그리스도인봉사캠프운동도 역시 성장해왔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인봉사캠프들에서 매년 여름마다 현재 약 800주간의 집회들이 개최되고 있는 것이 현재의 상황입니다. 매년 여름마다 100,000명 이상의 젊은이들이 이들 캠프들에 참여합니다. 평균적으로 약 1,500명이 넘는 젊은이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침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매년 여름마다 최신 통계에 따르면 약 700명의 이 젊은이들이 전문적인 그리스도인 사역을 위해 스스로를 준비하도록 도전을 받았고 동기를 부여받았습니다.

D. 선교사 수는 약 2,000명[D. Missionaries number about 2,000.]

1. 해외 선교사 약 1,000명[1. About 1,000 missionaries overseas.]
2. 60개국에서[2. In 60 countries.]
3. 82개 선교지에서[3. On 82 mission fields.]
4. 500개의 다른 선교 기지들에서[4. On 500 different mission stations.]
5. 현재 성경 대학 등록학생의 5% 이상이 선교지에 헌신[5. Over 5 per cent of present Bible college enrollment committed to the mission field.]

또한 우리는 선교지가 성장하고 있음을 발견합니다. 오늘날 우리 선교사들은 현재 약 2,000명입니다. 그 중 거의 1,000명이 해외 선교사들로 봉사하고 있습니다. 이들 선교사들은 약 60개국 약 82개 다른 선교지에서 봉사하고 있으며 전 세계적으로 약 500개 선교기지들에서 발견되고 있습니다. 오늘날 전체 성경 대학 등록학생의 약 5%가 선교지에서 헌신하고 있습니다.

E. 약 5500개의 교회. 1,200,000명 이상의 출석교인[E. About 5500 congregations. Over 1,200,000 members.]

또한 오늘날 우리는 미국 전역에 약 5,500개의 회중들(교회들)을 갖고 있습니다. 이들 5,500개 교회들에는 약 1,200,000명의 출석교인들이 있습니다.

F. 무악기파 형제들[F. Non-instrument brethren.]

1. 약 12,000개의 교회[1. About 12,000 congregations.]
2. 약 2,500,000명의 등록교인[2. About 2,500,000 members.]
3. 공통의 신앙을 고수하고 서로를 형제로 인정하는 것에 기초한 일치 협의들[3. Unity consultations based upon adherence to the common faith and recognition of each other as brethren.]

아, 무약기파 형제들은 약 12,000개의 회중들(교회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2,500,000명의 출석교인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몇 년 동안에 드러난 고무적이었던 것은 이들 두 그룹 사이에 일치 협의들이 있어왔고 공통의 신앙을 고수하고 서로를 형제로 인정하는 것에 기초하여 유지되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점점 더 개최되고 있으며 이들 형제들 사이에서 고무적인 진전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결론[CONCLUSION]

I. 교인수, 신학교, 목회자, 선교사, 교회가 자유주의 진영들에서 쇠퇴하는 시대에 환원운동은 각 분야에서 성장을 경험하고 있음[I. In a day of membership, seminary, ministerial, missionary, and church decline in liberal circles, the Restoration Movement is experiencing growth in every area.]

교인수, 신학교, 목회자, 선교사, 교회가 자유주의 교단들에서 쇠퇴하는 시대에 환원운동은 이들 영역의 모든 분야에서 성장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II. 교단들의 배도에 지친 모든 교단들의 신자들이 다시 공통의 만남의 장을 찾고 있음[II. Believers in all the denominations, wearied of apostasy in denominational circles, are looking again for common meeting ground.]

오늘날 모든 교단들의 신자들은 교단들의 배도에 실증을 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문자 그대로 수천 명씩 이탈하고 있습니다. 최근 10년 동안 이들 주요 교단들의 상당수가 교인수의 25%, 30%, 37%의 감소를 겪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다시 공통의 만남의 장을 찾고 있기 때문입니다.

III. 환원운동에서 역사적이고 성경적인 그리스도교 신앙의 고수(固守)가 발견될 뿐 아니라 또한 그것이 초교파적 맥락에서 발견됨[III. In the Restoration movement is found not only an adherence to the historical Biblical Christian faith, but it is found in an undenominational context.]

환원운동에서 역사적이고 성경적인 그리스도교 신앙의 고수(固守)가 발견될 뿐 아니라 또한 그것이 초교파적 맥락에서도 발견됩니다.

V. 세계 인구는 1850년에서 1950년까지 3배(3,000,000,000) 증가[IV. The world's population tripled from 1850 to 1950 (3,000,000,000).]

A. A.D. 2000년까지 다시 두 배로 증가[A. To double again by 2000 A.D.]

B. 1950년에 세계 인구의 33/30퍼센트가 그리스도인[B. In 1950 33/30 percent of the world's population was Christian.]

C. 1960년까지 30퍼센트로 떨어짐[C. By 1960 it had dropped to 30 percent.]

D. 주후 2000년에는 20퍼센트 미만이 될 것으로 예상됨[D. It is projected that by 2000 A.D. it would be less than 20 percent.]

1850년에 우리의 세계 인구가 단지 10억 명에 불과했다는 것을 주목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이것을 3배로 증가시키는 데 100년이 걸렸습니다. 1950년에 인구는 30억 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000년까지 이 수치가 다시 두 배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미 우리는 52억 명의 지점을 돌파하였습니다. 주장한 바에 의하면, 1950년에는 세계 인구의 33퍼센트와 30퍼센트가 적어도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러나 10년 후인 1960년에는 30퍼센트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2000년에는 이 수치가 20퍼센트 아래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V. 영혼 인도자로서 곧 만인사제직의 성경적 교리를 새롭게 한 강조로써 모든 그리스도인의 참여를 필요로 하는 미완의 큰 과업이 있음[V. There is a great-unfinished task that necessitates the involvement of every Christian as a soul-winner, a renewed emphasis upon the scriptural doctrine of the priesthood of all believers.]

아시다시피 모든 그리스도인이 영혼 인도자로서 참여하게 하는 명령 곧 미완의 엄청난 과업에 귀를 기울이는 이러한 관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만인사제직을 새롭게 강조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것 같았습니다.

VI. 지금은 초교파적 그리스도교에 증인을 위한 또 그리스도를 유일한 신조로, 성경을 믿음과 실천에 대한 유일하고 모든 충분한 규범으로 또 그리스도인 뿐(Christian only)을 내용으로 신약성경의 패턴에 따라 교회회복을 위한 갱신된 호소를 위한 전례 없는 기회의 시대[VI. This is an era of unprecedented opportunity for a witness to undenominational Christianity and for renewed plea for a restoration of the church after the New Testament pattern with Christ as the only creed, the Bible as the only and all-sufficient rule for faith and practice, and content to Christian only.]

우리는 전례 없는 기회의 시대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교회는 2000년의 존재 역사상 가장 풍요로운 교회입니다. 우리는 복음메시지를 우리 세상에 전할 미디어의 모든 기술에 대한 예술적 공개를 접해왔습니다. 우리는 또한 운송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우리 세상에서 가장 먼 곳까지 접근할 수 있도록 하여 내 집 앞 계단을 볼 수 있도록 합니다. 우리의 것은 복음 메시지를 온 세상에 전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환상적인 청지기 직분입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초교파적 신약성경 그리스도교에 증인을 위한 또 그리스도를 유일한 신조로, 믿음은 물론 실천을 위한 유일하고 모든 충분한 규범으로의 성경을 위한 호소로, 그리스도를 유일한 신조로, 성경을 믿음과 실천의 유일한 규범으로 또 단지 단순히 다시 기꺼이 알려진 그리스도인 뿐

(Christian only)으로 신약성경의 이상을 좇아 교회의 회복을 위한 갱신된 호소를 위한 전례 없는 기회의 시대입니다.

그리고 오, 복음을 전파하기에 얼마나 좋은 때인가! 모든 신자들이 단순히 성경의 백성, 그 책의 백성으로 다시 알려지게 합시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이 무엇을 믿고 왜 그것을 믿는지 다시 알게 합시다! 그들로 하여금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 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들을 하나님께 보이기를 힘쓰도록”(딤후 2:15)하게 합시다! 우리가 믿고 가르치고 실천하는 것은 무엇이든 책, 장, 구절을 사람들에게 다시 말할 수 있게 합시다! 그것을 설교자에게가 아닌, 교파 교회가 아닌, 호소(plea)에게가 아닌 어필(appeal)을 하게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다시 어필하게 하여 사람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근거한 그들의 소망을 갖게 합시다! 우리가 거룩한 임무를 갖기에 얼마나 좋은 시기인가! 그것은 아직 끝나지 않은 과업이며 또 그것은, 예수님께서 심지어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그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때가 아직 낮이매 우리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 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요한복음 9:4).